

[ 러시아유라시아 비즈니스 정보 ]

# 투르크메니스탄, 세계 최초 GTG 공장 건설



세계 4위 천연가스 보유국인 투르크메니스탄이 6월 28일 수도 외곽인 오바단-데페(Ovadan-Depe) 지역에서 세계 최초의 '천연가스 휘발유 정제(Gas-to-Gasoline, GTG)' 공장을 개설했다. 이 신규 공장에선 연간 1.785bcm(1bcm=10억m<sup>3</sup>)의 천연가스를 처리하여 60만 톤의 휘발유, 1만 2,000톤의 경유, 11만 5,000 톤의 액화천연가스(LNG)를 생산할 예정이다. 이 공장은 일본 가와사키 중공업과 터키 기업 룬네산스 컨소시엄이 17억 달러(약 2조 원)를 투자해서 건설했다. 가스액화(Gas-to-Liquid, GTL) 공장으로는 중앙아시아 최대 규모다.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경제난을 겪고 있는 투르크메니스탄은 이와 같은 천연가스 현금화 외에도 중국 외에 다른 지역으로 천연가스 수출처를 다변화하기 위해서도 애쓰고 있는 중이다.

## 투르크메니스탄, 중앙아시아 최대 GTL 공장 준공

경제난을 겪고 있는 세계 4위 천연가스 보유국인 투르크메니스탄이 천연가스를 현금화하기 위해 6월 28일 세계 최초로 천연가스를 휘발유로 정제하는 GTG 공장을 개설했다. 수도 아시가바트(Ashgabat) 외곽 사막 오바단-데페(Ovadan-Depe)에 세워진 이 공장에선 연간 1.785bcm의 천연가스를 정제해 옥탄가 92인 휘발유 60만 톤, 경유 1만 2,000톤, LNG 11만 5,000톤을 생산할 예정이다. 공장은 향후 몇 달 동안 성능 점검을 끝낸 뒤 본격적인 가동에 착수한다. GTG를 포함한 가스액화, 즉 GTL은 천연가스를 액화 정제해서 정유제품을 생산하는 기술이며,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어 온 GTL 프로젝트들은 주로 디젤 생산이 목적이었다.

일본의 가와사키 중공업(Kawasaki Heavy Industries)과 터키 기업 룬네산스(Ronesans)가 공장 건설을 위해 17억 달러를 공동 투자하고, 덴마크 촉매회사인 할도 톱소(Haldor Topsoe)의 기술을 사용했다. 완공까지 5년이 걸린 이 공장은 중앙아시아 최대 규모다.

카타르의 오릭스(Oryx) GTL 프로젝트에도 참가한 적이 있는 할도 톱소는 성명을 통해 “휘발유는 최고 수준의 환경 기준에 부합하며, 유황과 원하지 않는 부산물을 거의 함유하고 있지 않다.”라면서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쓴 기술을 다른 곳에서도 도입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준공식에 참가한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Gurbanguly Berdymukhammedov)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은 “우리는 과학 발전을 계속하고 있으며, 투르크메니스탄을 ‘녹색’ 경제의 중심국가로 만들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 투르크메니스탄, 대(對)중국 수출 의존도 탈피 노력

자원 부국인 투르크메니스탄은 2009년 완공된 중앙아시아와 중국을 잇는 가스 파이프라인을 통해 주로 중국에 천연가스를 수출해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낮은 에너지 가격에 의해 타격을 입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일부 물량은 이란과 러시아로 수출하는 등 천연가스 수출처를 다변화하기 위해서도 애쓰고 있다. 다만, 카스피 해(海)를 통해 인도와 유럽까지 이어지는 다른 초대형 파이프라인 건설 공사는 경제 및 정치적 문제로 인해서 장기간 지연되어왔다. 한편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지를 포함해 다수의 GTL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다.

자료정리 : EMERiCs, 자료감수: 박지원 KOTRA 전문위원

### ※ 출처

- Business Standard, Turkmenistan opens USD 1.7 billion gas-to-liquids plant, 2019.06.28.
- S&P Global, Turkmenistan inaugurates groundbreaking gas-to-gasoline plant, 2019.06.28.
- Energy Review, Turkmenistan inaugurates \$1.7bn GTL plant, 2019.07.02.
- Green Car Congress, Turkmenistan gas-to-liquids refinery ships first synthetic gasoline to Afghanistan, 2019.07.02.